

인천논현 지역난방공급 최초 상업운전 개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1962년 7월 1일 설립되어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공급, 도시정비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주택건설 1,659천호를 건설하였고 현재 자본금 약 8.8조원 임직원 3,8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년간의 국내 주택난방기술을 선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 최초로 1998년 인천논현 택지개발지구에 추진하여 2000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2004년 대전서남부와 2005년 아산배방지구에 대한 사업허가를 득하였으며 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에너지사업단은 4팀 1사업소의 43명과 운영요원 25명 등 총 68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인천논현 사업추진현황

공사가 최초로 추진한 인천논현 집단에너지사업은 초기단계부터 택지개발, 공동주택건설, 집단에너지 시설, 인프라구축 등 종합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03년 8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다.

열원시설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공단과 소래포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최초 사업허가 당시 지역난방 공급세대수가 18,900호로 추진하였다.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열공급구역 확대를 통해 2006년 현재 46,000호로 약 240%의 공급 세대수 확대를 기하였으며, 인천시의 쓰레기 소각열을 2006년 6월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관로공사가 현재 90% 완료 되었으며 2006년 3월 6일부터는 인천논현 12BL(801호)에 공사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순조롭게 열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사우나, 헬스장)과 전망대공사가 마무리되는 종합 준공시점에서는 인천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하며, 착공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백만시간 무장애 달성을 기록하는 등 2007년 10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산배방 사업추진현황

아산배방지구도 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구로 1단계 면적 111만평을 2008년까지 개발하게 되며 천안아산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과 주택 8,125호 및 추후 2단계로 면적 약 510만평에 주택 4만8천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냉·난방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을



신광현 단장

검하는 최초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복합화력 발전시설, 보일러, 변전소 및 열과 전기의 공급 배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설계도서 입찰 및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 1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대전서남부 사업추진 현황

대전서남부지구는 2003년 3월 산업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구로 지정하여 2004년 5월 공사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지구로 택지

개발계획 1단계로 2010년 6월까지 개발면적 177만평에 23,676호를 건설할 예정으로 승인된 상태이다. 추후 2단계 288만평에 약 45,000호의 추가 건설계획이 예정된 지구로서 인근에 1990년대 중반에 중앙난방방식으로 개발된 관저지구가 있어 열공급지역 확대에 유리한 지구이다.

현재 사업지구 인근인 관저5, 노은3 지구와 대전시에서 개발하는 학하 지구를 열공급 대상구역으로 포함하는 변경사업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가격이 저렴한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연료를 직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구역형전기사업(CES) 추진

중규모 집단에너지사업(CES)은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보급 정책이므로 공사에서는 중규모(5,000~10,000호) 택지개발지구에 적용 예정이나 현행 전기공급능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최대 전력수요의 70%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투자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는 실정으므로 발전시설용량을 30% 또는 50%로 규제완화를 요청하여 향후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